



2024 autumn

동국대학교의료원보

vol.40

지구가가 아프면

환경호르몬과 건강

사람도 아프다



헤어져도 좋았던 시간만을 생각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좋게 말하는 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아름다운 인연을 간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중에서
지은이 _ 성전 | 출판사 _ 마음의 숲

발행인 채석래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4년 9월 1일 (통권 40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기획 · 편집 · 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gil

2024
autumn
vol.40

HEALTH

- 05** Intro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게
- 06** Zoom in 1
생활 속 환경호르몬
- 08** Zoom in 2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환경호르몬
- 10** Medical Theme 1
우리 아이 성조숙증 유발
- 12** Medical Theme 2
남성 건강을 위협하다
- 14** Medical Theme 3
알레르기 유발
새집증후군
- 16** Medical Theme 4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 18** Good Doctor
가족을 완성하고
생명을 지키다
- 22** Korean Medicine
우리 주변 환경호르몬도
비만의 원인

HAPPINESS

- 24** Essay
랑무스에서 마음의
풍경을 그리다
- 26** Letter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부모님
- 28** Travel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마법의 도시
포르투갈 포르투
- 32** Book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DUMC

- 34** Focu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강경수술센터
최첨단 로봇수술장비 도입
- 38** Team
미소로 시작해
사명감으로 끝나는
외래간호사의 하루
-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 46** Donation
보시공덕
- 48** Together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
- 51** Schedule
진료 일정 안내

PART 1 HEALTH



Medical Theme

환경호르몬과 건강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게

생활 속 환경호르몬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환경호르몬

우리 아이 성조숙증 유발

남성 건강을 위협하다

알레르기 유발
새집증후군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가족을 완성하고
생명을 지키다

우리 주변 환경호르몬도
비만의 원인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게

감자, 당근은 흙이 떨어지니까 비닐봉지에 넣고 생선은 포장이 됐어도 물이 흐를까 봐 다시 한번 비닐봉지에 넣고. 장바구니 안에 비닐봉지가 한가득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천 장바구니를 챙겨 나섰는데 오늘도 비닐봉지를 잔뜩 집안으로 끌고 들어왔네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460개(2017년 기준)입니다. 하루 평균 1.3개인 셈이지요.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조 개의 비닐봉지를 쓴답니다. 사용한 비닐봉지를 연결하면 매시간 지구를 7번 덮을 정도라지요. 엄청납니다.

비닐봉지는 환경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나무를 베어 만드는 종이봉투를 대체할 요량으로 개발한 거지요. 종이보다 가볍고 물에 젖지도 않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지요. 그런 비닐봉지가 이젠 환경 재앙 주범이 됐습니다. 비닐봉지 한 장의 평균 사용 시간은 25분. 자연 분해되는 데는 무려 500년 이상 걸린답니다. 버려진 비닐봉지를 태우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땅속에 묻으면 환경호르몬을 내보내고, 쓸 땐 편리한데 뒤처리가 골칫거리지요. 버려진 비닐봉지는 산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죽은 고래 뱃속에서 수십 장의 비닐봉지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지요. 어디 비닐봉지뿐인가요. 플라스틱 등 편리를 위해 만들고 쓰는 각종 생활용품이 지구를 위태롭게 합니다.

토양, 해양 생태계 위협은 당연히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땅과 바다의 것들이 그대로 우리 식탁에 오르니까요. 비닐봉지,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지요. 환경호르몬이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호르몬이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염증 유발, 면역세포 억제 등 당연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지요. 안타깝게도 몸에 축적된 환경호르몬은 자녀 세대에까지 대물림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린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적어도 훗날 후손이 땅을 파서 발견하는 유물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지금의 편리함부터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이란?

모든 생명체는 수많은 호르몬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간의 광범위하고 정교한 네트워크는 생명체의 정상적인 발생, 성장,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는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호르몬들의 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은 이러한 호르몬들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화학물질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 화학물질들을 통틀어 ‘환경호르몬 (Environmental hormone)’, ‘내분비계장애물질’ 혹은 ‘내분비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ors)’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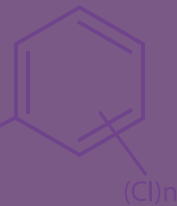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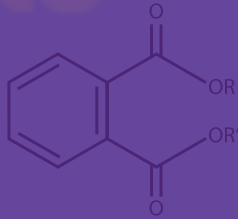


환경호르몬 종류 및 노출경로

현재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들의 노출경로는 식품, 공기, 피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노출경로의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필수적인 음식, 공기, 물에는 이미 다양한 환경호르몬들이 혼합체의 형태로 오염되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을 통한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은 화학물질의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으로 인한 원재료의 오염, 식품을 담는 용기를 통한 오염,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소화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일부 화학물질들의 주요 노출원 사례

다양한 식품	→	농약류
소각장, 염소화합물이 연소될 때	→	다이옥신류
건축내장재, 가구, 전자제품	→	할로겐 유기화합물류
플라스틱 용기, 통조림, 영수증	→	비스페놀 A
합성세제	→	알킬 페놀
각종 플라스틱 제품	→	프탈레이트
컵라면 용기	→	스티렌
아말감, 배기가스, 어패류와 같은 일부 식품	→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환경호르몬

인체에 필요한 기능을
적재적소에서 수행한 후에는
조속히 분해되어 체외로
대사되는 내부 호르몬과는 달리,
환경호르몬들은 부적절한 시점에
부적절한 용량으로 존재함으로써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인체의 내분비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복잡하므로
내분비계가 영향을 받을 때
아주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식기관의 발생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환경호르몬들이 생식기계, 갑상선,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식기관의 발생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많은 환경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하고 생식기는 이러한 환경호르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의 발생 및 발달의 예로는 정자 수의 감소, 수컷 생식기 크기의 감소, 수컷 생식기의 암컷화, 생식행동 이상, 수정률 감소, 개체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인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서는 1970년대 유산방지제로 사용된 합성 에스트로겐인(Diethylstilbestrol, DES)을 중심으로 보고되었습니다. DES를 복용한 임산부가 출산한 남아의 경우 정자 수의 감소, 정자 운동성 감소, 기형 정자의 발생 증가, 생식기 기형, 정소암, 전립선 질환, 기타 생식과 관련된 조직의 이상들이 발견되었고, 여아의 경우 유방과 생식기관의 암, 자궁내막증, 자궁섬유종, 유방의 섬유세포질환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영향이 분명하게 확인된 합성 에스트로겐인 (Diethylstilbestrol, DES)과 달리 다른 에스트로겐 합성화학물질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에서 환경호르몬의 건강영향을 타당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즉, 앞서 기술했던 비선형적인 용량-반응관계나 복합체의 특성들로 인하여 개별 환경호르몬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체에서 정확히 밝혀낸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현재까지 설명되지 않는 남성의 정자 수 감소와 전립선암, 고환암, 유방암의 증가추세, 불임과 성조숙증의 증가 등은 다양한 환경호르몬의 복합작용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뇌신경계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역학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타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중 노출이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만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는 유기염소계 농약, 폴리염화 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다이옥신(Dioxin), 불소화합물, 브롬화난연제(Brominated Flame Retardant, BFR), 비스페놀 A(Bisphenol A), 올가노틴, 중금속류 등으로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이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여 비만을 일으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제2형 당뇨병, 이상지혈증, 갑상선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환경호르몬들이 지방조직에 저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만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많은 질병들의 발생과정에 이러한 환경호르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면역계와도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분비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화학물질들은 간접적으로 면역계와 신경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스페놀 A와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중금속과 농약의 직업적 노출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아발달장애, 퇴행성뇌질환, 암, 면역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생활 곳곳 퍼진
환경호르몬

우리 아이 성조숙증 유발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도 불리며, 체내 호르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합성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자연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 정상 호르몬이 수용체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호르몬은 정상 호르몬의 합성, 분비, 이동, 대사 및 배출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 발달 중이거나 생식 과정에 있는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는 생식기 발달 이상,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여자 아이의 성조숙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조숙증이란 여아는 만 8세 이전의 가슴 발달,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 크기 증가와 같은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아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평균 초경 시기가 만 14세 이후였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 만 12세 후반으로, 최근에는 만 12세 초, 중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점차 빨라지는 사춘기 시작의 원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영양상태, 서구화된 생활 방식과 더불어 환경 호르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인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코팅제로 흔히 사용되는 폴리염화비페닐,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와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스페놀 A(BPA)는 우리 생활 전반에 침투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즉석식품 및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류,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및 유제품은 프탈레이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물질이거나 부분적으로 구조가 유사하며 신체 내 에너지 균형을 깨뜨려 사춘기 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로 여아의 소변에서 BPA 농도가 높을수록 사춘기 발달이 조기에 나타나며, 산업 폐기물에 노출된 지역의 아이들에서 성조숙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에 들어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므로, 플라스틱 포장재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식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리, 금속 또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는 것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이용 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고 식품을 저장할 때 플라스틱 랩 대신 밀폐용기를 사용합니다.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화장품이나 개인 위생용품 대신 천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용 장난감에도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BPA-Free, Phthalate-Free 표시가 있는 장난감을 선택하거나 안전 인증을 받은 장난감을 선택합니다. 가정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자주 환기하고 공기 정화 식품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환경호르몬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내분비, 갑상선질환,
소아당뇨병, 성장지연,
성조숙증, 성장클리닉



생활 곳곳 퍼진
환경호르몬

남성 건강을 위협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라고 하는데, 내분비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외부 물질들의 집합체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암의 발생률 및 발달장애, 비만,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생식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켜 건강을 저해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Endocrine Society and 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에서 2024년도에 출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질병 중 24% 이상 및 심각한 질환들 중 80% 이상이 환경 인자, 즉 EDC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와 같은 살충제, 비스페놀(Bisphenols)과 프탈레이트(Phthalates)와 같은 플라스틱 및 가소제, 카드뮴, 비소(Arsenic) 및 무기납(Inorganic lead)과 같은 중금속,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

oroalkyl Substances, PFAS) 및 브롬화 난연제(Brominated Flame Retardants, BFRs)와 같은 산업용 화학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은 안드로젠 수용체 및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방해하며,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자의 숫자, 운동성, 형태, 생존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금속 중 카드뮴은 고환에 침착되어 불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비스페놀 A 및 프탈레이트의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신체의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것 중 하나가 플라스틱 및 가소제입니다. 식기, 음료수병과 같은 식품 접촉 물질, 어린이 장난감 및 여러 가지 생활 및 산업용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성분 중 하나가 비스페놀 A입니다. 비스페놀 A도 다른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마찬가지로 정자의 숫자, 운동성, 형태, 생존성을 저하시키며, 동물 실험에서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현행 식품 접촉 물질 내 비스페놀 A 허용한계치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2023 년도에는 식품 접촉 물질 내 비스페놀A 금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비스페놀 A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품에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일일섭취허용량 및 식품 용기로부터의 용출량 규제 기준은 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플라스틱 및 가소제에 포함되는 프탈레이트는 정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 역시 국내에서도 안전 노출 기준을 정해 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년도에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비스페놀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축적은 대부분 경구 섭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인체 노출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고, 장기 노출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으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포함된 식품 접촉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여 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의학과

박 동 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요로결석
(신 · 요관 내시경수술),
전립선비대증
(내시경절제술),
소아비뇨수술,
남성 성기능,
요로생식기감염,
일반비뇨의학

알레르기 유발

새 집 입주하기

“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눈이 따갑고 두통과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 새로 지은 집이나 새로
리모델링한 집에 들어갔을 때
매캐한 냄새와 함께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
아닌 사람들도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이나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사용된 건축 자재, 가구,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들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

신축 건물의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사용된 유해 화학 물질로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에틸벤젠 등) 등이 있습니다.

증상

- 눈, 코, 목의 자극
-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현기증, 구토
- 기침, 가래, 호흡기 문제 증상
-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 기존 알레르기 증상의 악화

• 베이킹 아웃 (bake out)

베이킹 아웃(베이킹 아웃)은 실내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베이킹 아웃은 단시간 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새집증후군의 원인을 40~50% 없앨 수
있으며, 이사 전 또는 입주 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수납 가구의
모든 문과 서랍을
열어둔다.

STEP 2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는다.

STEP 3

난방을 가동하여
35~40도 정도로
하루 10시간
유지한다.

STEP 4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가량
환기시킨다.

이 과정을 5회 정도 반복한다.

예방

• 공기정화 식물 기르기

식물의 유해 물질 분해 능력은 잎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기급적 잎이 큰 식물을 키우면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키가 1m를 넘는 관엽식물 또는 다육식물은 공기오염물질과 냄새 제거, 전자파 차단,
심신 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테이블아자는 암모니아와 화학적 유독가스 제거에 효과적이며 새집증후군은 물론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키우면 좋다. 스파티필름은 관엽식물로 아세톤과 이산화질소를 흡수하고 화학물질이나 전자파
차단 효과가 뛰어나 가전제품 근처에 두면 좋다. 홍콩아자는 진한 녹색 관엽식물로 공기정화와 습도
조절에 좋고, 인도고무나무는 관엽식물로 유독가스를 흡수해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잎이 넓어서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 공기정화기 사용

공기정화기는 필터가 뽁뽁할수록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크며, 오염 물질뿐 아니라 곰팡이, 먼지,
악취제거도 효과적이다. 다만 입자가 작은 담배 연기, 진드기 항원 등은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필터 교체 등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최근 여러 매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건강 영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1950년대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 병, 미나마타병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 노출 사건에 의한 중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교적 높은 농도의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치료가 어렵고 고통이 심한 증상이 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지며 전반적인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여 고농도 노출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의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국민의 환경오염 물질 노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기, 수질 등 여러 경로로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

이는 허용한계 수준 미만에서도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노출되는 수준의 환경오염 물질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내분비계 질환,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당 물질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도 우리 몸에서 느끼지 못할 수준의 이상소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개인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집단과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인구 집단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가 상위 30%인 사람 천명과 혈중 카드뮴 농도가 하위 30%인 사람 천 명을 비교해 보니, 상위 30%인

집단에서 고혈압 환자가 1.1배 더 많이 나왔다는 방식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역학연구 결과는 집단에 적용하여, 보건학적으로 중금속 노출을 예산을 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노출됩니다. 보통 카드뮴이라고 하면 담배 연기를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도 카드뮴은 약간 들어 있고 어패류에도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카드뮴 노출의 저감을 통해서 고혈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카드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쌀과 어패류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쌀과 어패류에 있는 중금속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오염 노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령 쌀을 예로 들자면, 잔류량 검사를 하여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쌀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됩니다. 연구자들은 카드뮴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보고하며, 이를 넓게 해석하자면 그 기준치를 더 낮추었을 때 발생하는 건강 영향의 이득에 대한 근거를 쌓아갑니다. 상기에 예를 들었던 연구 디자인이라면, 상위 30% 수준의 카드뮴 노출자에서 하위 30% 수준으로 노출을 저감한다면 해당 집단에서 고혈압이 0.9배 덜 생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카드뮴 노출을 더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보건학적인 이득을 산출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의사들은 계속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개인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연구를 보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내 고혈압은 중금속 노출 때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을 집단이 아닌 개인에 적용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가령, 고혈압을 일으키는 요인은 유전, 식이, 운동, 생활 습관 등 수많은 것이 있으며, 각각의 요인이 고혈압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한다면 환경오염 물질이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행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도, 음식에도, 물에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연구자들과 관계기관의 의무입니다. 다만, 모든 오염물질에 전혀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해당 물질들의 저감 대책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상시 노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집단’ 수준에서의 거시적인 연구 결과를 ‘개인’의 건강관리를 하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비판적인 시각은 항상 필요합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백기욱 교수
전문진료분야
직업병, 특수건강진단



가족을 완성하고 생명을 지키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고 있다.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 축복받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고위험 임신이 많아지면서 아기가 무탈하게 태어나고 산모의 건강이 확인되어야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 단란한 가족을 완성시키기 위해 돕는 사람, 고위험 임신 전문의,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를 만났다.

저승의 문턱에 선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

김희선 교수는 고위험 임신과 출산 전문가이다 보니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폐색전증이나 산후출혈로 전원되어 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 7월에는 산후출혈이 심한 환자 4명이 연달아 들어오는 바람에 2주 동안 하루 2~3시간 잠을 자면서 환자 곁을 지켰다.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출혈이 멈추지 않아 찾아온 환자는 김 교수가 40분 이상 지혈대를 누르며 지혈해 수술 후 살려냈다. 출혈이 심했던 한 산모는 혈액을 60팩 수혈했다. 사람 몸의 혈액량이 4리터, 혈액 60팩이면 온몸의 피가 6번 바뀐 셈이다. 그렇게 출혈이 심했지만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회복해 퇴원했다.

“고위험 산모는 분만실에 들어오면 거의 옆에 붙어 있어요. 예전에 은사님이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면 환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환자가 위험한 상황일수록 김 교수는 환자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피고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위로한다. 때로는 손잡고 함께 울기도 한다. 퇴원한 환자가 나중에 아기를 데리고 소아청소년과에 검진 왔다가 마주치면 친정엄마와 딸이 만난 듯 울먹이기도 하고, 힘들게 수술해 퇴원시켰던 환자가 아기를 안고 가족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한번은 베이비페어에 참여해 강의를 했는데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도 저인 줄 알고 찾아와 인사한 산모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힘이 들어도 환자의 곁을 지키는 큰 원동력이 된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김희선 교수는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2023년 9월 18일 문을 연 상담센터는 김 교수가 발로 뛰어 유치했다. 경기권역센터가 수원에 위치하다보니 경기북부 산모들은 방문이 쉽지 않았다. 전국에 권역별로 1개 설치가 원칙이나 경기북부권역에 별도로 설치해야함을 피력해 문을 열게 되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출산 후 7년 이내의 미혼모), 대상자들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출산 이후의 전 시기에 걸쳐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원한다. 개인·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주제의 자조모임, 산림치유프로그램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만의 전문적인 명상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희선 교수는 “센터를 운영할수록 좋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난임 부부, 사산 부모, 다문화 가정 등 사례에 따라 우울증의 원인이 달라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고위험 임신과 출산

최근에는 산모들의 나이가 아주 적거나 35세 이상이 많아지면서 고위험 출산이 늘어났다. 김 교수는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요즘 산모들은 통증에 민감해서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호해요. 산모가 결정할 문제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서 산모가 건강하고 자연분만에 문제가 없으면 자연분만을 권합니다. 회복도 훨씬 빠르거든요.”

김희선 교수는 출산과 임신에 관해서 식생활과 환경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환경호르몬 영향으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정자 기형이나 정자 숫자가 줄어 들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정 전에 이미 난자와 정자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환경호르몬과 난임의 영향은 확실해요. 환경호르몬의 영향성에 관해서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상 산모와 고위험 산모의 혈액을 분석했을 때 혈액 내 환경호르몬 양이 차이가 있어요. 고위험산모들이 제가 수련 받을 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7년 동안 산후출혈은 간혹 봤지만 폐색전증은 2명 정도 봤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명꼴로 발생하거든요.”

김희선 교수는 난임,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정책 제안과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한다. 동국대 AI 융합대학 JA 겸임교수를 하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고려대학교 교수와 함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주관하는 ‘스팀(STEAM) 연구 사업’에 선정돼 난임 여성, 임신부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의사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아 아버지가 의사 하면 잘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려서는 막연하게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의사가 되었네요.”

의대에서 수련하면서 산과는 명확해서 좋았다. 아무리 과정이 복잡해도 출산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퇴원하면 해야 할 일이 끝나기 때문이다. 똑떨어지는 그의 성격에 잘 맞았다.

김 교수는 환자들에게 ‘우리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는 늘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헌신이 그를 특별한 의사로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

전문진료분야
고위험임신, 조산(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쌍둥이 임신,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태아 선천성 기형 및 초음파 진단, 산전 유전진단, 사랑나눔클리닉

경력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병원 인턴, 산부인과 전공의, 임상강사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조교수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부교수 / 동국대학교 AI 융합대학 JA 겸임교수 /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

episode

#1

여덟 번 자연 유산한 산모가 찾아왔다. 점쟁이가 ‘동국대학교병원 김희선 교수한테 가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고 꼭 집어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결과는 임신 34주에 아기 출산. 산모와 남편은 아기랑 기념사진을 찍으며 평평 올었다. 김희선 교수도 함께 올었다.

#2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임신해서 왔다. 모자를 꼭 눌러쓰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김 교수는 산모의 멘탈을 잡아주는 데 집중했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산모는 많이 밝아졌다. 출산 후 어린 산모와 그의 어머니, 간호사까지 병실은 눈물바다가 됐다. 아기는 입양을 보내기로 했지만 어린 산모는 출산 직후부터 모유 수유를 하며 아기에게 정성을 쏟았다. 퇴원 후에는 모유 짜놓고 학교에 가는 등 육아에 적극적이었다. 결국 아기는 외할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직접 키우기로 했다. 김 교수는 “미혼모들이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 줘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며 퇴직 후에는 미혼모들이 자활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주변 환경호르몬도 비만의 원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교란물질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 저하, 암 발병, 알레르기 및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아청소년들의 발육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환경호르몬이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한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지방세포의 생성과 축적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르몬과 신호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뇨병과 비만의 중요한 기전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조절과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과식을 유발하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하여 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중에서도 지방조직에 저장되는 지용성 물질들은 적은 농도에서도 유해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 문제점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한 경 선 교수

전문진료분야

척추질환, 뇌척수마비, 교통사고 후유증,
비만, 해독, 체형교정

한방(韓方)으로 건강한 몸 만들기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체내에 쌓인 환경호르몬 배출을 위해서는, 식이 섬유가 많이 함유된 녹색 채소를 챙겨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운동은 체내의 순환을 개선하고,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식요법

한의학에서 치료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절식요법은 세포 내 쓰레기는 처리하는 시스템인 자가포식(오토파지, autophagy)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독(解毒)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의 개념은 2016년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제한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이 최대치에 이르게 되며, 자가포식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세포 소기관이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절식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므로 지방세포에 저장된 환경호르몬의 방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절식요법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서서히 줄여 절식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절식 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 시기와 식이요법에 걸친 단계적인 음식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해독을 돕는 한약재

환경호르몬 해독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들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인진호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결명자는 간의 해독 능력을 증진하고, 소화기 계통을 개선하여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 황금, 황련과 같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한약재들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 산사, 생강과 같은 한약재는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 대황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를 신속히 배출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 뜸, 부항 치료는 경락과 특정 경혈을 자극하여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해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적 해독요법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PART 2
HAPPINESS

랑무스에서 마음의
풍경을 그리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부모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마법의 도시
포르투갈 포르투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랑무스에서
마음의 풍경을 그리다

작은 버스가 푸른 초원의 풍경을 안고 달렸다. 넓디넓은 초원에 야크와 양의 무리가 사진처럼 펼쳐져 있다. 이곳은 유럽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라블랑스를 찾아가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산소가 부족한 탓이었을까. 곁에 있던 도반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해발 3600m의 랑무스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웅대한 풍경의 전부를 여행자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랑무스까지는 천천히 가야 하는 길이었다. 성급하게 올라가는 이방인은 결코 랑무스에 도착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천천히 걸으며 문명의 허영과 도시적 천박함을 다 버리고 오라는 랑무스의 깊은 음성만 같았다. 편리를 추구하지도 말고 느낌을 답답해하지도 말고 오직 불성을 향한 경배의 마음으로만 다가서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천천히 걷다 보면 찾아오는 현기증 같은 증상들. 나를 멈추게 하는 그 고원의 지대를 어린 라마승들은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랑무스의 풍광은 아름다웠다. 좌측은 미국의 새도나를 연상케 하고 정면과 우측은 스위스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만 같았다. 그 풍경을 대하는 순간 이곳이 결코 세상의 오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경의 중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풍경에 몰입한 나는 고산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 고원에서 또 다른 탄생을 기원하는 동경자였다. 마치 랑무스의 라마승들처럼 날마다 저 풍경을 바라보며 살고 싶었다. 저 웅대한 풍경 앞에 서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마음속에 그려지겠는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마다 저 풍경과 함께 그려지는 마음의 풍경들. 그것은 아마 탈속과 고요와 무쟁의 평화가 아니겠는가.

어디선가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승방이었다. 출입은 중국인 친구를 통해서 허락을 얻고서야 가능했다. 세 명의 스님이 마당에 작은 책상을 앞에 놓고 경을 외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30년을 공부하면 선지식의 칭호가 주어진다고 했다. 학인 라마승들은 경을 외고 선지식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들은 경 읽는 소리는 겨우 세 명이 읽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렸던 것은 왜일까. 그것은 어쩌면 이 산 전체가 그 소리를 따라 읽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원은 한창 불사 중이었다. 중국 정부는 매년 많은 돈을 불사에 지원한다고 했다. 중국불교, 그것은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불교의 부정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불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한중 불교의 교류는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한중 불교의 우정의 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만 한다. 서로 사려 깊고 신중하게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승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소리가 들리고 라마승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라마승들의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맨바닥에 줄지어 스님들이 앉고 큰 스님들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아주 어린 라마승에서부터 노구의 스님들까지 그들의 좌석은 차서를 따라 정해져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치 우리가 법당에 차서에 앉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왜 법당을 놔두고 법당 앞의 맨 바닥에 앉아 예불을 모시는 것일까.

저녁 햇살을 받은 랑무스의 금칠을 한 전각들이 반짝였다. 이 고원의 대기를 빛내는 저 반짝이는 황금빛 사원의 지붕. 그것도 역시 이곳에서는 하나의 자연이었다. 저 빛나는 황금빛마저도 순하게 다가오는 이곳의 풍광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법당의 안과 밖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황금과 자연은 또한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이 안에서는 번뇌까지도 자연이었다.

저녁내 두통과 호흡의 불편함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픔에 매이지 않았다. 나의 이 아픔이 아침 햇살을 맞기 위한 신호인 것만 같았다. 아침이 오면 나의 아픔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는 랑무스의 멋진 풍경이 새겨질 것만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나의 예감은 적중했다. 아침 햇살이 들자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자연인 랑무스의 선명한 풍경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내 삶에 랑무스의 풍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반야바라밀 아닐까. 아침 햇살은 내게 또 다른 자유를 선물해 주었다. 🌸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성전스님

글 성전스님

現 천안 천흥사 한주.
현재, 불교방송(BBS)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 손>, <비움, 아름다움, 채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때로 반짝이고 때로 쓸쓸한> 등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부모님

늘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고마운 마음을 오늘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 몸을 일으키지 못해 무서워 울음을 터트렸을 때, 부모님께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함께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농성 고관절염이라는 급성 세균 감염에 의한 병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켜 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모님

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학교생활을 하던 중 경주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전국 곳곳을 탐방하고 캠핑을 다니며 추억을 쌓게 되었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햇살을 받으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후드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기도 하고, 뽕양게 쌓인 눈 속에서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을 보드득 밟으며 눈썰매를 타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든 단풍잎이 떨어지는 숲길을 걸으며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면서 텐트 안은 가족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아지트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영화도 보고, 대화도 나누며 쌓았던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 대학원에 와서 부모님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계란후라이가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날, 하나씩 날개로 포장된 계란후라이들이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도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겪는 실패와 우울

함, 그리고 힘든 일들 속에서 부모님은 항상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은 제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삶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두 분께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랑스런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유빈 올림 🌸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마법의 도시 포르투갈 포르투

#1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여행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를 배려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함께 활동하는 일은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여행 일정 안에 ‘따로 또 같이’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의 여행에서 얻은 작은 노하우라고 할까?

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일행과 오후에 만나기로 하고 아침 일찍 숙소를 빠져나왔다. 오늘 일정은 해리포터의 모티프가 되어 더 유명해진 펠루서점과 마제스틱 카페가 전부라 느긋하게 골목길을 걷고 광장에 앉아 사람 구경이나 실컷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광장에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과 활기찬 웃음이 가득해 에너지가 넘쳤다. 광장 한편에 다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올라(Ola)” 나는 주뻔거리며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유럽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면 항상 웃으며 인사를 한다. 부러웠다. 누군가에게 스스럼없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비단 나에게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고쳐 보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았다. 내가 함께 웃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소녀의 웃음 앞에 내 차가운 마음이 조금은 녹는 것 같았다. 마침 고개를 든 딸의 아버지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좋은 사람들이다. 알 수 없지만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2 조앤롤링과 해리포터가 유명세를 보태지 않았어도 뽀루서점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실내 조명과 오래된 나무 서가와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만으로도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통로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계단에는 붉은색 천을 입히고 구불구불 회전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형태는 보는 순간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뽀루서점의 역사를 담은 그림동화책 한 권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중앙 계단과 서점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사진을 찍느라 바쁜 여행자들 틈에서 무심한 듯 책을 펼치고 읽는 기분이 좋았다.



#3 서점을 빠져나와 다시 광장으로 걸었다.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았다. 광장 한 켠에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꽃말을 들고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느 소년 동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그 동상보다 동상이 팔을 얹고 있는 빨간 우체통에 계속 눈이 갔다.



서점에서 산 뽀루서점 사진이 프린트된 엽서를 가방에서 꺼냈다. 여행 중 이번 여행을 함께해준 동행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쓰려고 샀지만 첫 엽서는 나 자신에게 보내고 싶어졌다. 여행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보낸 위로의 엽서를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 한국에서 받는다면 언제든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힘들고 지칠 때,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워질 때 이 엽서를 보면 언제든 포르투의 이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4 마제스틱 카페와 뽀루서점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지만 카페는 밤에 오고 싶었다. 카페를 제외하고 건물 대부분의 전등이 꺼진 순간을 보고 싶단 생각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들었었다. 상상 속의 순간을 보기 위해 카페가 영업을 마치기 30분 전에 도착했다. 비교적 늦은 시간이라 예상대로 건물 대부분의 조명은 꺼져 있었다.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그곳은 해리포터의 영향 때문인지 ‘마제스틱 카페’라는 글자를 보면서도 ‘매직 카페’라고 읽혔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일까? 카페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거나 치워둔 빈 의자에 앉아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카페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서서 상상 속의 순간을 끄집어냈다. 카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운 이를 떠올리고 카페로 들어서면 동화처럼 만날지도 모른다는 내 멋대로의 상상.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녁에 숙소에서 만나기로 한 동행들이 웃으며 나를 불렀다. 순간 내 얼굴엔 작은 아쉬움이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쳐있는 나를 위로하려고 내 마지막 행선지를 예측해 기다려준 사람들의 마음에 울컥하고 고마운 울음이 올라왔다. 🌸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좋은 책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많아서 자주 밑줄을
긋게 됩니다.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도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거의 모든 장마다
밑줄을 그어 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 한 대목,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소개합니다.

“일상이 영감의 순간이 되면 발리족 사람들이
말하듯 ‘특별한 예술이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술’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미리 쓰인 각본이나 경직된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행동이 곧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는 즉흥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세계적인 예술가들(베토벤,
모차르트, 고흐, 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삶, 중국과
일본의 옛 선사(禪師)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일상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위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약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것.
둘째, (기대·욕심·두려움·나를) 내려놓을 것. 셋째,
기술이 무의식화될 때까지 연습할 것.

어쩌면 조금 뻔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원래 단순하고 간단한 법입니다! 다만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과거와 미래 또는 여러 가지 집착에 얽매여
살고, 비우기보다 채우기에 급급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
하기보다 빠른 결과를 쫓아 기웃거립니다.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는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에너지,
마음의 목소리야말로 창조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 앞서 말한 세 가지, 몰입과 내려놓음의 태도는
창조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입과 내려
놓음으로 나를 활짝 열면, 내 안에 있는 뮤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영감
의 순간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잊으면 우주가 될
수 있다’라던 일본의 선승 하쿠인 에카쿠의 말처럼요.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지음
권혜림 옮김

여기 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술적 창조성은 잘 훈련받고 숙련된
성인 예술가가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한 놀이 의식의 원천을 활용할 때
만개한다.”

혹시 놀이하는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놀이할 때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놀니다. 돌
하나, 나뭇잎 하나조차 재밌는 놀이 재료가 됩니다.
나아가 아이들은 놀이에 완전히 몰입해서 스스로 돌이
되고 나무가 되고 산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성에
관한 가장 훌륭한 예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창조
성을 찾고 싶거든 아이들의 놀이처럼 삶을 대하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과 하나가
되라고! 그러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며칠 전 네 살배기 아들과 블록 놀이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톱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설명서를 잘 보고 따라 해야지.” 블록 놀이를
하는 데 ‘아니’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꼭 설명서
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 자유롭게
펼쳐지는 아이의 상상력을 틀에 박힌 어른의 시선으로
방해한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강요와 제한의 말을 던져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걸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말로 스스로의 창조성을 움아매고 있지는
않나요? 언제나 가장 큰 적은 바깥이 아닌 내부에 있다는
오래된 가르침은,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에든 고스란히
적용되는 인생의 진리라는 생각입니다.

“지극한 도(道)란 어렵지 않으니
단지 분별하는 마음만 버리면 된다”

-승찬대사-



수술은 정교하게 · 환자는 안전하게 · 회복은 빠르게
첨단 로봇과 인술의 융합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강경수술센터 최첨단 로봇수술장비 도입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부인과 복강경수술센터가 최신 로봇수술장비를 도입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도입은 정주호 병원장 부임 이후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경북 지역 최고의 지역병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반영한 결정으로, 환자 중심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수술장비 도입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4세대 다빈치 로봇수술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술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난도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로봇수술을 통해 진료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인근 대형 병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지역거점병원」과 「믿고 찾는 동국대학교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지역의료의 거버넌스 체계(지역주도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 구축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 운영의 롤-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PART 3 DUMC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강경수술센터
최첨단 로봇수술장비 도입

미소로 시작해
사명감으로 끝나는
외래간호사의 하루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보시공덕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

진료 일정 안내

전국의 여성이 찾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강경수술센터

2023년 6월 1일 문을 연 복강경수술센터의 김도균 센터장은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오는 심부자궁내막증 최고의 명이다. 예약 환자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당일 접수를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환자들이 새벽 2시부터 대기한다.

김도균 교수와 10년 넘게 함께 한 전문의, 전문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9명이 팀을 이뤄 최상의 치료를 실현하고 있다.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복강경수술센터는 자궁근종, 선근종, 심부자궁 내막증 치료 및 국내 최초로 골반신경병성통증을 치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자궁의 기능과 정상적인 생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적의 치료로 여성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도균 교수팀은 여성의 자궁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젊은 여성 환자에게 호르몬 요법은 지양한다.

이번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은 경북 환동해권 최초 도입 사례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다빈치 로봇 수술시스템 도입으로 특히 부인과 질환 환자 수 및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적인 여성 건강관리 및 명실상부한 부인과 질환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국내 최고 심부자궁내막증과
골반신경병성 통증의 권위자

김도균

복강경수술센터 센터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강경수술센터의 수장 김도균 센터장은 심부자궁내막증, 자궁보존 근종 선근증절제술, 골반신경병성 통증 치료 등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이다.

2023년 세계골반신경학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극동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표로 선출되었다. 세계골반신경학회는 골반신경을 통해 하반신 마비 환자의 치료 및 만성골반통, 골반 내 신경의 병변을 진단 및 치료·연구하는 학회다.

전국의 심부자궁내막증 환자들이 찾아오는 김도균 교수를 만나보았다.

Q 전국의 환자가 교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요?

A 심부자궁내막증은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저를 찾아 오시는 거겠죠.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교포도 찾아오십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지만 낫지 않아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까지 점심, 저녁 식사를 거르고 환자를 봅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

전문진료분야
심부자궁내막증,
자궁보존 근종 선근증절제술,
난소 종양 자궁하수 교정술,
골반신경병성 통증 치료 및 전기치료

Q 골반신경병성 통증은 뭔가요?

A 골반 안에는 혈관이 복잡하게 많아요. 그 밑에 있는 신경을 찾기는 어렵지요. 각종 신경이 골반 안에서 놀릴 때 통증은 있지만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좌골 신경통이 꼭 허리에서만 놀리는 건 아니에요. 골반 안에서 신경이 놀려 발생하기도 하는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병중에 집중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이 분야를 하는 의사들이 없어 유럽과 브라질 등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연구하고 공부했지요. 20년 이상 한우물을 팼기 때문에 초음파만 봐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이 분야를 연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한골반 신경연구회를 만들어 63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Q 심부자궁내막증이 그렇게 심각한 병인가요?

A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조직에 부착하여 증식하는 것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심부자궁 내막증은 자궁과 주변 장기에 유착이 된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Q 호르몬 요법을 쓰지 않는 의사로 유명하신데
그 이유가 뭔가요?

A 제 환자의 95%는 호르몬 요법을 쓰지 않고 치료합니다. 수술 후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로 관찰하지요. 20~30대 여성이 호르몬 요법을 쓰게 되면 젊은 나이에 갱년기로 살아가야 해요. 20대가 50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궁도 적출하기보다는 보존을 목표로 수술합니다.

Q 한 달간 40회 이상의 로봇수술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가요?

A 기존의 복강경 수술이 수술 부위를 3배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로봇수술은 15배 확대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미경에 가깝지요. 미세한 세포 덩어리의 유착도 구별해서 수술할 수 있어 훨씬 정교한 수술이 됩니다. 자궁과 장기 사이에 유착된 것들을 다른 부위 손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깊은 복막하에 침투해 있는 심부자궁내막증 병변을 제거하는 것에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

미소로 시작해 사명감으로 끝나는 외래간호사의 하루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래간호팀 » 외래

‘9시!’
마치 출발선에 선 달리기 선수처럼 외래간호사들은 오늘을 시작한다. 간호사들은 진료 시작 전 진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산망을 통해 예약된 환자 명단을 확인한다. 접수된 환자의 이름을 화면에 띄우면서 그날의 진료가 시작된다. 물 한 잔 마실 짬이 없는 날도 있고, 화장실 다녀올 틈이 없을 때도 다반사다. 예약된 환자와 당일 내원한 환자들까지 순서대로 진료받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외래 간호사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래 25개 진료과에서 87명의 외래간호사들은 진료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환자 접수, 환자 호명, 본인 확인, 각종 검사 결과 확인, 활력징후 체크, 진료 후 안내문 제공, 검사 안내, 예약 안내 등 하루 종일 쉼 없이 환자들을 응대한다. 외래 환자가 많은 진료과는 하루 200명 이상의 환자가 다녀가기도 한다.
진료가 끝나는 5시 30분이면 외래간호사들은 녹초가 된다. 그러나 그날의 마지막 환자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표정이 병원의 얼굴이다’라는 사명감으로 미소와 친절을 잊지 않는다.

●
외래간호팀 김미숙 수간호사는 “외래간호팀은 병원의 이미지이며 환자와 만나는 최접점부서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병원을 평가하는 대상이 됩니다”라며 항상 고객 만족을 염두에 두고 팀원들에게 친절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외래간호팀은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조회를 한다. 인원도 많고 25개 진료과에 흩어져 있어 모두 모이는 시간은 조회 시간뿐이다.



김미숙 수간호사는 서로 얼굴 마주 보며 소통할 시간은 조희뿐이라 10분간의 조희지만 난센스 퀴즈를 내고 작은 초콜릿 상품을 준다거나, 체조, CS(고객 만족)교육, 진료과의 교육자료 공유 등 알차고 재미난 시간을 만들려 노력한다.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해야 그날 하루도 웃는 얼굴로 환자를 만나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간호사의 아침은 매우 바쁘다. 조희를 마치면 25개 진료과를 모두 돌아본다.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 까지 돌아보며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바쁜 과에는 지원해 주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고객상담실에 들어온 민원도 해결한다.

●

외래간호팀은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른 과 진료도 안내할 수 있도록 늘 공부하며 지식을 갱춘다. 각 진료과 별로 교육자료가 있으면 조희 시간에 공유하고 87명이 모두 참여한 대화방을 통해 궁금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여 환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종 질환으로 불안하고 힘든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안내하기 위해 쉬운 말로 설명하며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안내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보호자 동행 없이 혼자 방문하는 어르신 환자들에게는 눈을 맞추며 설명하고 이해하셨는지 확인도 잊지 않는다.

최근에는 병원 내 접수와 수납이 키오스크로 바뀌면서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환자들은 잘 다루지 못하시니 키오스크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있다.

●

김미숙 수간호사는 “환자분들이 비록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시지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만족하며 귀가하실 수 있도록 외래간호사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병원의 전문성 · 우수성 입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마취 적정성 평가▲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평균 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병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높은 의료 서비스 품질을 반영한 결과이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덕분”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2년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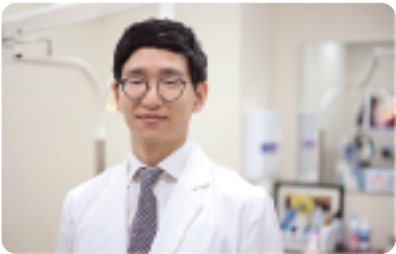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 6월 21일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실시한 우수 검사실 신입 인증 심사에서 ‘매우 우수’ 등급의 우수검사실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심사는 검사실 운영, 진단 혈액 등 총 12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 점검표를 토대로 검사 및 정도 관리 업무에 대한 실사와 관련된 업무 지침과 현황, 인력, 환경,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진단검사의학과는 개원 이래 총 12회의 인증 심사에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검사실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목표로 기본에 충실하며, 의료진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미국흉부학회(ATS) ‘유망한 신진 연구자’로 선정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2024년 7월의 유망한 신진 연구자(Emerging Investigator)로 선정됐다. 김진엽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비부동 CT 기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예측’ 논문이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IF: 19.3)에 이번 달 게재되었으며, 미국흉부학회는 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유망한 신진 연구자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BRIC)에서 소개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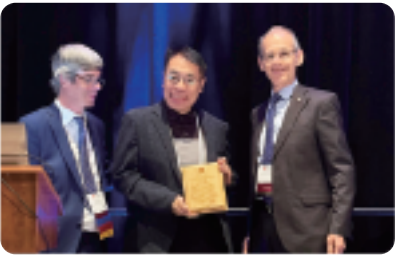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보해 교수, ‘의료기기 안전관리 유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 수상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보해 교수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제17회 의료기기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유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보해 교수는 기관 내 의료기기 안전 정보 모니터링센터에서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 업적과 중환자실 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조직공학재생의학 ‘국제 펠로우 (FTERM)’ 선출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 조직공학재생의학 학술대회(TERMIS World Congress)에서 조직공학재생의학 국제 펠로우(FTERM)로 선출됐다.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아시아 · 태평양, 북미, 유럽에서 매년 지역별로 개최되는 대륙별 학회와는 달리, 3년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학자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학회다.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학자 중에서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시니어 연구자를 기존 펠로우들의 투표를 통해 학회 기간에 선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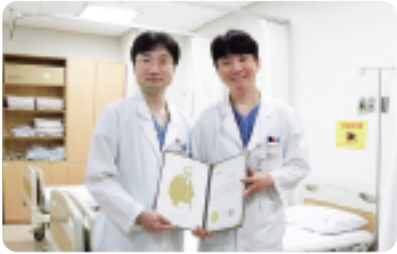
신장내과 송정인 교수, 아시아 · 태평양 신장학 학술대회 &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 수상

신장내과 송정인교수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 · 태평양 신장학 학술대회(APCN) & 제44차 신장학회(KSN)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송정인 교수는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단일 세포 전사체 및 공간 전사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공 의와 전임의 수련 기간 동안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단검사의학과 이태현 임상병리사, ‘세계 헌혈자의 날’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진단검사의학과 이태현 임상병리사가 지난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태현 임상병리사는 혈액은행실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한 수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 혈액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2회 한중 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25일 국제심포지엄인 ‘제2회 한중 의료포럼’을 개최했다. 한중 의료포럼은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중의과 학원 왕징병원과의 연구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의료 로봇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다.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왕징병원 Jinghua Gao 병원장, 의료 인공지능 · 바이오 · 로봇 분야의 전문가, 관심 있는 교직원 및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바이오센싱캡슐, 지능형 로봇, 뇌졸중 환자 재활에 VR 적용 등 다양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원도 영월군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한방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5월 19일 강원도 영월군을 찾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교직원 30여 명과 쌍용 C&E 영월공장 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지역민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시행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휴일을 반납하고 멀리까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준 교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지역거점병원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7월 18일 지역거점병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자 건축위원장 윤국 돈관 크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각급 기관장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료의 중심, 함께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거점병원 도약 관련 성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부인과복강경센터 개소 ▲중환자실 확장 ▲최첨단 의료장비(PEC-CT, 선형가속기, 다빈치 로봇수술기 등) 도입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수술실 증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의 성과를 보고하였으며, 호흡기 · 폐암센터 구축, 최신 듀얼-에너지 CT 도입, 감염병 치료병상 구축 및 중환자실 추가 증설, 응급의료센터 확장, 입원 병상 확충 계획 등 중진료권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 · 외과적 문제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바로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집중치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치료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존 응급의료센터 내에 정신응급환자 전용병상(1인실) 2개를 마련하고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가진 이 동시 협진을 실시한다. 또한 간호사·보안인력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효과적인 초기 대응과 맞춤형 적시 치료가 가능하다.

건강심사평가원 발표,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마취 적정성 평가'와 '제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마취적정성평가는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3회 연속 모두 만점을 받으며 수술, 마취 안전 관리 최우수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전 평가지표에서 종합 병원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정주호 병원장은 “내원객들에게 지역 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본부 제1차 정신·요양병원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공공의료본부 지역협력 연계팀은 7월 10일 제1차 경주권 정신·요양 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주권 내 정신·요양병원 14개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지역협력연계팀의 필수 보건의료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각 분야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주권 정신·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 논의하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역할과 대학병원으로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7월 23일 '2024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21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지정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소개 및 네트워크 활동,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소개 및 성과지표 관리,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소개 및 투어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승만 감염관리실장은 “신종 감염병 등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나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서로 소통 및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철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따른 '탕전실 환경개선'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철약 급여화에 따른 시설 정비 및 재구축을 위하여 탕전실의 환경 개선 작업을 지난 6월 22일 진행했다.

이번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탕전실의 바닥 보수와 노후 기기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탕전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김근우 병원장은 “탕전실 환경개선을 통해 한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 환경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성화 활동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성화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병원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층 로비와 재활치료실 내에 QR 코드를 설치하여 환자들이 간편하게 병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병원의 홈페이지와도 연동이 되어 예약 및 진료 일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치유 공간, 재활치료실 테라스 신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2층 재활치료실의 테라스를 신설하며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근우 병원장, 지도법사 보경스님, 성원석 교육연구부 부장, 양방재활 의학과 김대한 과장과 김한철 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새롭게 오픈한 테라스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기존의 높은 문턱이 있는 미닫이문을 개선하여, 문턱과 틀을 제거한 레일매립형 폴딩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또한 테라스에 펜스를 설치하여 추락을 예방하고, 바닥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 낙상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육발전 감사패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 의학계열은 지난 6월 13일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육발전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늘마루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5월 9일 개정된 이 조례에 따르면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은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유택 동산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조례 개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의학계열 교육발전을 위한 경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이관 의과대학장, 김기욱 한의과대학장, 정주호 병원장, 그리고 경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예방의학교실 유석주 교수,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학회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석주 교수(교육 부학장)가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 수련이사로서 관련 분야의 학술 증진 및 후학 양성과 연구진들 간의 연구 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로상을 수상했다.



역량강화기획관리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6월 1일 '역량강화 기획관리위원회(자체평가연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의과대학 의학 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고, 현황 파악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위원과 실무위원들이 참석하여

올해 진행 예정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대비했다. 영역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학이념 구현과 함께하는 '제8회 지혜와 리더십' 개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5월 9일부터 10일 까지 건학이념 구현과 함께하는 '제8회 지혜와 리더십'을 개최했다.

의학과 1학년 9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대학 교육목표 중 지혜를 갖춘 의료인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자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이론 및 실무 경험과 대응팀 리더로서의 역할 확인'을 목표로, 지역 현장 교육과정 소개, 현장 역학조사 Q&A, 감염병 예방 사업 홍보, 방향,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시공덕

남한산성 망월사 회주 **성법스님**이 5월 10일과 7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기원하며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성법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는 의료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하길 발원하고 내년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최첨단 병원으로 성장하여 자비의료실천과 부처님 법 전하는 병원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동국대병원 지부는 5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5백만 원**을 기부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일부터 7일간 병원 1층에서 '가정의 날 기념 바자회 개최'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로 노사 상생과 병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했다.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는 6월 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기원하며 **1억 8천만 원**을 추가 약정했다.

박덕선 대표는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으로 1억 4백만 원을 기부했고, 이번에 새롭게 병원을 위해 써달라고 5백만 원씩 3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추가 약정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 회주 **화정스님**은 6월 11일 용성조사 탄신 160주년을 기념하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회주 화정스님은 “육신이 아픈 사람이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비히사 사무량심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치유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의학 발전을 위한 보시가 곧 용성조사의 윤희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후원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정스님은 7월 4일에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에 써 달라고 **5천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재)법보선원에서는 6월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로봇수술센터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2021년 4월 13일, 불교계 의료선진화를 위한 로봇수술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0억 원을 지원 약정한 것에 따른 기부로, 현재까지 총 32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으로 마련된 송담 로봇수술센터는 최근 최첨단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7월 5일 20kg 썬글(양미) 50포대를 후원하여 교직원과 환자식을 위한 대중공양을 진행했다.

정목스님이 7월 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 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목스님은 “기부금이 불교병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태지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스님의 무주상보시 실천에 싶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스님의 청안청락을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자문스님이 7월 1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 각 5백만 원씩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도반스님 면회 시 기부자 라운지에서 안내와 편의제공에 감사를 전하고 불교병원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에 스님으로서 환희심을 느꼈고 자비의료를 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는 병원과 한방병원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한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익명의 스님이 7월 19일 첨단 의료 장비 도입을 위해 써 달라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내년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자비 의료 실천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첨단의료장비 도입을 발판 삼아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은평구 송천사 주지 **혜장스님**이 지난 7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혜장스님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로비 전광판에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발심했고 이 기부금이 의료 장비 구입에 사용되어 불교병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화정스님	150,000,000
(재)법보선원	100,000,000
익명의 스님	100,000,000
성법스님	20,000,000
혜장스님	20,000,000
(주)아라니아	13,000,000
대성사	10,000,000
자문스님	10,000,000
정견스님	10,000,000
정목스님	10,000,000
정재면내과의원	10,000,000
동국대일산병원지부노동조합	5,000,000
지철스님	3,160,000
홍순지	2,300,000
돈관스님	2,000,000
이명규	2,000,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	1,600,000
법륜스님	1,500,000
(주)코탑미디어	1,000,000
(주)한국에스웨이	1,000,000
고양시 사암연합회	1,000,000
김옥자	1,000,000
김태임	1,000,000
대학약국	1,000,000
메디비	1,000,000
보리심	1,000,000
신예리	1,000,000
연인숙	1,000,000
적연스님	1,000,000
정안스님	1,000,000
정현덕	1,000,000
종상스님	1,000,000
학교법인동국대학교	1,000,000
혜각스님	1,000,000

강경민	김경숙	김수성	김태은	덕연스님	박성파	보관스님	수환스님	옥천암	이병기	이준우	전숙진	조정연	최창익	해원스님	
강경임	김경숙	김수현	김하결	덕진스님	박세진	보관스님	시현스님	우경스님	이병훈	이지영	전소영	조주연	최현정	해원스님	
강금주	김경순	김수희	김한성	도견스님	박세환	보관스님	신경근	우덕스님	이보영	이지영	전용화	조현규	최혜성	해경스님	
강기택	김경옥	김숙경	김해옥	도경원	박소연	보리수	신경민	우보스님	이상년	이지영	전원용	조혜진	최희원	해철스님	
강명숙	김경택	김숙자	김해인	도영스님	박수연	본각스님	신경수	우점순	이상미	이지원	전은영	조희경	케이디	홍민재	
강보라	김경희	김도현	김해정	도민스님	박수연	부동스님	신대규	우종훈	이상순	이지원	전재용	조희근	메딕스	홍민희	
강서강	김경희	김순덕	김향숙	도선스님	박수혁	부안리	신대규	우태경	이상한	이지현	정경숙	조희연	탄증스님	홍성희	
강석진	김관희	김순례	김현규	도웅정	박수현	삼이재학	신동환	원 각	이상현	이지현	정경윤	종일스님	탄정스님	홍승욱	
강세연	김광기	김순만	김현서	도환스님	박신애	삼양산업	신보라	원각사	이상훈	이지호	정경철	홍은나라	탄하스님	홍유실	
강시우	김광오	김시연	김현주	도형수	박애자	삼해스님	신복섭	원명사	이서현	이진권	권근조	주경식	탄하스님	홍은순	
강영식	김광태	김연경	김현준	동국대	박옥득	삼오스님	신석재	원해스님	이선아	이진희	정기순	주경희	대양택집	홍은정	
강은경	김국현	김연하	김형수	학교경주병원	박옥석	새한산업	신성숙	유경자	이선희	이찬송	정길석	주상봉	편수연	홍주혜	
강은석	김귀연	김영근	김형준	주병원회	박완선	서미경	신성정	유광옥	이성학	이채원	정륜스님	주은명	편정숙	홍주혜	
강이일	김규빈	김영남	김혜숙	동국대	박완임	서보영	보기술	유금애	이세임	이춘자	정목스님	주해스님	평일스님	홍희진	
강인자	김근영	김영려	김혜원	학교경주한방병원	박월희	서연희	신성현	유 로	이소영	이춘진	정미라	종화법당	하경임	화음스님	
강지영	김근우	김영미	김혜자	한방병원	박월희	서연희	신성현	이소영	이한희	이춘진	정미선	대중사	하순출	환성스님	
강해진	김기연	김영미	김혜정	동국	박유진	서영문	신윤주	유리에	이소정	이해원	정보옥	지광스님	하유근	황민섭	
경원약국	김기욱	김영복	김혜진	의료기	박은동	서영교	신은재	유미숙	이수현	이향년	정석화	지복스님	하윤정	황병선	
경조스님	김기화	김영수	김홍식	동림택집	박은진	서운교	신은정	유서영	이수지	이향미	정성애	지수스님	하정혜	황선희	
경진케어	김나희	김영숙	김한례	동성스님	박일엽	서윤경	신은희	유영희	이수철	이향자	정성훈	지일스님	하현지	황성순	
경희스님	김남수	김영은	김효진	동심	박재근	서준	신정수	유정형	이승영	이현숙	정수진	진경애	한광수	황수미	
계림운수	김남희	김영자	김홍수	모금함	박재란	서지원	신정순	유주형	이승욱	이현숙	정수희	진모스님	한국	황수미	
고금자	김남희	김영진	김희경	동진스님	박재수	서지은	신정용	유창국	이승주	이현창	정성택	진상스님	한국	황순덕	
고미선	김단혜	김영현	김희선	두임씨	박재영	서찬	신정훈	유현숙	이승철	이형경	정성현	진성스님	한국	황영철	
고완영	김달용	김영훈	김희영	앤에스	박정애	서해경	신진경	윤금섭	이애영	이혜근	정삼님	진성스님	한위너스	황은선	
고재영	김대영	김예경	김희애	도림내	박정자	서해영	신학녀	윤기하	이향노	이혜숙	정양민	진영스님	한위너스	황은진	
고재욱	김덕희	김용배	김희은	트위크	박정화	서희선	신현모	윤명희	이양희	이호준	정연화	차옥련	한명희	황은자	
고지현	김도연	김용숙	김희진	류경현	박정희	서희주	신현지	윤민아	이연희	이효정	정영희	차행문	한명희	황은영	
고한스님	김도연	김원고	나경스님	류대안	박종학	석상원	신형신	윤병하	이영미	이희영	정영희	채석래	한상미	황의선	
고현걸	김도연	김은경	나득영	류완하	박준엽	선경스님	신희정	윤복연	이영미	이희정	정옥재	채은미	한영	황재영	
공자윤	김도현	김은미	나용용	민발선원	박종희	선근스님	심규진	윤복연	이영아	이희지	정윤영	채지원	한광조	황재원	
공학배	김동일	김은영	남궁현옥	명상스님	박지현	선도스님	심미나	윤수임	이영애	인공	정원기	철우스님	한유리	황정희	
곽경필	김관희	김은정	남유화	명서은	박진아	선보스님	쌍계사	윤순선	이영림	인목스님	정원스님	정우도원	한윤희	황정희	
곽범석	김명숙	김은정	남정애	명소정	박진우	선영스님	씨마	윤승현	이영자	인승소	정윤정	대중사	한은숙	효경스님	
관정스님	김명숙	김은진	남현미	명주스님	박진채	선재스님	안대승	윤승환	이영찬	인준영	정윤준	초은암	한재필	홍수남	
구남이	김명숙	김은희	남현숙	명품	박채희	성남시	안동소	윤영준	이예린	인터	정은숙	최귀정	한주아	외다수익명	
구병수	김명숙	김이수	남형모	메디칼	박철근	공무원	안민아	윤은주	이용찬	내서날	정은숙	최귀정	한주아	외다수익명	
구복식	김무중	김익환	남하연	모종은	박철용	불자회	안숙자	윤정호	이용필	메디스타	정미선	최귀례	한주형	외다수익명	
구순정	김문식	김인숙	노경란	모수스님	박대현	성범스님	안영길	윤정희	이우석	일진스님	정일스님	최동렬	한지수	외다수익명	
권건순	김문희	김인영	노명서	묘화스님	박해련	성보스님	안원태	윤종화	이우일	일형스님	정재스님	최무현	한창호	외다수익명	
권기엽	김미경	김인자	노수익	무관스님	박향미	성수현	안인숙	윤혜진	이원상	임가린	정재우	최민철	한창희	외다수익명	
권기현	김미경	김재은	노영수	무구스님	박향미	성수희	안종한	윤효영	이원찬	임경자	정재현	최민철	한창희	외다수익명	
권나은	김미라	김진중	노현주	무이스님	박현걸	성원석	안지은	윤정스님	이원희	임근일	정정호	최병철	한태웅	외다수익명	
권대식	김미라	김정화	능진스님	무진스님	박현숙	성진스님	안효용	이가원	이유나	임동하	정주신	최보은	한희정	외다수익명	
권도윤	김미숙	김정미	능자스님	문병모	박현숙	성하스님	안희연	이강현	이유라	임명숙	정 준	최삼보	한희찬	외다수익명	
권도화	김미숙	김정미	다울	문장우	박현주	성현스님	양광영	이경미	이윤미	임선희	정지우	최상돈	합동수산	외다수익명	
권두경	김미옥	김정미	케이크	문진숙	박현주	성효은	양오남	이경민	이은미	임수아	정진옥	최성록	해덕스님	외다수익명	
권명조	김미형	김정배	다경스님	민상연	박현주	소선기	양원준	이경민	이은영	임수진	정하영	최소영	해광스님	외다수익명	
권민	김미하	김정설	대광스님	민소연	박희상	소연스님	양유리	이경순	이은자	임영택	정희수	최순식	해솔교육	외다수익명	
권범선	김민경	김정수	대신운수	민홍석	박효빈	소행연	양인숙	이경진	이은정	임윤정	정현주	최승웅	해송아	외다수익명	
권상숙	김민국	김정애	대웅약	밀봉암	박효진	손귀덕	엄미애	이경임	이은주	임재배	정혜은	최연악	구매물	외다수익명	
권성욱	김민규	김정형	대원스님	밀원스님	방선자	손기원	엄준필	이경환	이인오	임재선	정혜진	최영자	행이스님	외다수익명	
권세윤	김민성	김정혜	대원불교	대원불교	선명희	임종대	엄희경	이광현	이재연	장미대	정화스님	최옥이	허설	외다수익명	
권순태	김병국	김정희	대승종	대승종	박경순	배상만	손민표	여옥스님	이구슬	이지윤	임하영	정휴스님	최완우	허성중	
권승택	김병환	김정훈	불국사	불국사	박관	배서영	손석호	여현스님	이나영	이재수	자광스님	정희연	최왕열	허성진	
권영숙	김보수	김정희	대원불교	대원불교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권오성	김보성	김종대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오철	김봉희	김종애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웅태	김삼기	김종윤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일진	김상규	김지선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재규	김상근	김지연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재영	김선경	김지영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정애	김선순	김지애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태용	김선익	김지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태형	김선희	김진국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권해경	김성경	김진용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원적정사
권희재	김성규	김진환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금곡스님	김성룡	김철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조계종
금동호	김성목	김춘조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금오스님	김성현	김태규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김가빈	김세민	김태련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김가연	김세희	김태숙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김강림	김소원	김태영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대원불교
김강태	김솔아	김태윤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대광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퀴즈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강경수술센터의 김도균 센터장은 이 수술장비 도입 후 한달 여 만에 40여 건의 수술을 진행해 최고의 수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도입한 이 장비는 최소 침습 고정밀 수술시스템으로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4개의 로봇 팔이 사람의 손목 관절과 비슷하게 움직이며, 수술부위를 최소화하여 출혈과 흉터를 줄이고 합병증 발생률을 낮춰 빠른 회복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길(gil)이라는 인쇄물을 받아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인쇄물은 내용도 빈약하고 사진이나 그림의 비주얼이 떨어져서 보통 읽지 않고 버리는데, 여름 관련 내용인 것 같아 호기심에 뜯어 보았습니다. 몰랐던 계절별 상식과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관련 건강 정보도 매우 유용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좋았습니다. 구성이나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저도 모르게 끝까지 보게 되었네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병원 소식도 알게 되었고 내용도 알차습니다. 다음 호가 기대됩니다.

이★현 님

칭찬

6년 전 타병원 정형외과에서 다리 수술을 한 뒤 흉터가 크게 남아, 흉터 제거 수술을 권유받던 중 수소문 끝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임수아 교수님을 만나 뵈었고 교수님은 저의 흉터를 보시고는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법에 대해 확고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교수님께 깊은 신뢰감이 생겨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술 후 경과가 좋아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 업무 복귀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에게 신뢰감과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변에 흉터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나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 sokuon@dumc.or.kr
-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위선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4. 9. 1. ~ 2026.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취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나눔의 첫걸음,
동심 1·3·5와
함께 해주세요!

동심 1·3·5와 함께

동심 1·3·5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同心 ① 매월 1만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합니다!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마음을 새기어 생명존중과 자비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東心 ③ 매월 3만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기부자님의 나눔은 빛나는 동녘의 태양이 되어 동국대학교병원의 미래를 비춥니다.

動心 ⑤ 매월 5만원으로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기부자님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성장 동력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기부 외에도 일시납으로 기부액에 상관없이 동심 1·3·5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후원금별 상이)

후원 기관	후원 문의	후원 계좌	예금주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011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347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01-00-059986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tel 054. 770. 8130	우리은행 1005-202-076965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tel 031. 710. 3712	국민은행 368137-01-001162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